

광주 광산구 알바까지 동원 무차별 불법 주·정차 단속

징수한 과태료 수십억 직원 인건비로 써

주차장 특별회계 중 14억여원 교통 공무원 급여 지출

타 지자체는 일반회계서 지급...區 “열악한 재정때문”

광주시 광산구가 조례 규정과 달리,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거둬들인 과태료를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산구의 해당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도 급증, 일각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를 위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많은 주·정차 단속요원을 동원해 주·정차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1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한 주

차장 특별회계(56억4300만원) 중 25.4%인 14억3300만원을 교통지도과 정규직 공무원(18명)들의 급여로 지출했다.

광산구가 제정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거둬들인 과태료의 경우 주차장 조성·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 관리수탁자 관리 및 운영보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공영주차장 설치 재원적립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타 자치단체 설명이

다. 동구 등 다른 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근거로 정규직 직원 급여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형편이다. 광산구는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광산구가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범위 내에서 15억원에 달하는 직원 인건비를 지급할 정도로 많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확보하게 된 데는 저인망식 단속이 한몫을 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주민들의 주·정차 단속 민원이 빗발치자 10명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 저인망식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섰다. 동구 등 타 자치단체보다 최대 5배가 넘는 인력을 투입,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넘도록 주차가 이면도로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가면서 부과한 과태료만 42억

1600만원에 달했다. 전년도 부과액(38억 6800만)보다 3억 이상 많은 금액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직원 인건비를 주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불만 소리가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직원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직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지역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주·정차 단속에 나섰던 것이지 직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올해도 직원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예산안을 편성해놓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곳에 따라 소나기, 지역별 날씨, 바다 날씨, 물때, 주간 날씨, 생활지수

‘특혜 논란’ 서창동 백마산 승마장

건축주에 허가 취소 사전통지서 발송

서구, 내달 17일까지 의견 받아 결정

광주시 서구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동 백마산 내 승마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서구는 지난 20일 백마산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건축주에게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사업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광주시 감사 결과를 근거로 건축주와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묻는 통지서

를 보냈다는 게 서구 입장이다. 사전 통지서 발송은 건축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짓기 전 단계의 행정 절차라는 점에서 향후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다음달 17일까지 해당 건축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허가 취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마산 승마장 건설 반대 주민대책위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백마산 구유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허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더위 식히는 붓글씨 삼매경을 쓰고 있다.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대의동 학정서예원에서 서예반 원생이 심혈을 기울여 붓글씨를 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소방공무원 10명중 8명 “건강 이상”

18개 시·도중 두번째로 많아 2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전남도 소방공무원 10명 중 8명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국민안전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2056명 가운데 1554명(75.6%)이 ‘건강이상자’로 판정받았다.

두 번째로 많다. 또 전국 평균(56.4%)보다 무려 19.2%가 높은 것으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광주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1113명 중 238명(21.4%)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직업병 소견 또는 의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부산(25.8%)과 울산(23.8%)에 이어 전국 3번째다. 유대은 의원은 “소방관들의 건강 이상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80.6%)에 이어 전국 18개 시·도 중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형평성 논란

안에 주차뎀 10만원...앞에는 50만원

앞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 했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금액으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하는 경우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가입계약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SG에스골프만의 혜택. Famile co. BOOKING MALLS. http://www.bookingmall.co.kr